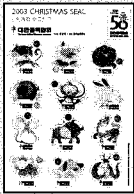


십이지간(十二支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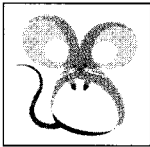


〈십이지간의 역사〉

십이지의 개념은 중국의 은대에 시작되어, 한대 중기에 이르러 방위나 시간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열두 동물에 비유되어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를 나타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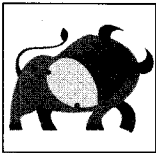
십이지의 순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다. 동물의 발가락 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다는 설, 각 시에 활동하는 동물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는 설,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한 동물 순으로 지위를 내렸다는 설 등이다.

* 2003년도 크리스마스 실은 10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을 통해 판매되며, 가격은 시트당 3,000원(장당 250원)입니다



쥐(子)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인 쥐는 달로 치면 11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쥐는 영리하고 재빠른 동물로 재앙이나 농사의 풍흉, 뱃길의 사고를 예견해 주는 영물로 인식되어 왔다. 쥐의 왕성한 활동력과 번식력은 예지와 다산, 근면, 재물과 부를 상징한다. 옛말에 쥐띠는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면하고 활동적인 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소(丑)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2월, 시간은 밤 1시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농경 사회에서 소는 농사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짐승으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소는 농사신으로서 부와 풍요, 힘을 상징한다. 꿈에 등장하는 소는 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로부터 '꿈에 황소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거나 '소의 형국에 뿔자리를 쓰면 자손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생긴 말이다.



범(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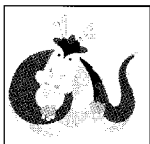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월, 시간은 밤 3시부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이 산신으로 숭상되고 있으며, 절에서도 산신으로 범을 모시고 있다. 옹망하지만 인간의 효행에 감동하여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는 은혜를 갚는 등 호랑이는 민화, 설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였다.

토끼(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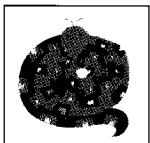
십이지의 네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2월, 시간은 밤 5시부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호랑이를 속이는 토끼, 자라를 속이는 토끼 등 전설 속에서 토끼는 의롭고, 꾀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행동이 민첩하여 심부름꾼이나 전령 등의 역할을 도맡는 토끼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민간 설화에서 옥토끼는 달에 살면서 떡을 찧거나 불사약을 만든다고 전해진다

용(辰)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3월, 시간은 밤 7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킨다. 용은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 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농경 문화권에서 군왕과 용은 동급으로 간주되어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의 평상은 용상, 임금의 옷은 곤룡포로 불렸다. 신라의 30대 문무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으니 동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에 따라 해중능이 만들어졌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또한 용꿈은 출세를 상징하는 길몽으로 여겨진다.

뱀(巳)



십이지의 여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4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털과 발이 없는 생김새는 혐오감을 주고 독기를 품고 있어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다. 전설 속에서도 대부분 뱀을 간사스럽고 세속적인 동물로 그리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구렁이 꿈이 아들을 낳는 태몽이라며 반겼다.

말(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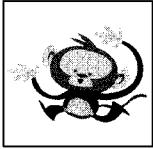


십이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5월,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외모에서 전해지는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 등 말이 주는 인상은 강인하다 이러한 말의 이미지는 고대 원시 미술, 고분 미술, 벽화나, 설화, 속담, 시가 등의 소재로 자주 쓰였다 신라의 건국신화를 보면 말이 하늘에서 말을 가져왔는데, 그 말에서 시조가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말은 천사의 구실을 한다.



양(未)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6월, 시간은 낮 1시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양에 대한 이미지는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은혜를 이는 동물로 수렴된다. 무리를 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도 동료간의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없고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을 지닌 양은 설화, 꿈, 속담 등에서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그려진다



원숭이(申)

십이지의 아홉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7월, 시간은 낮 3시부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힌다. 특히 부모 자식간의 극진한 사랑이나 부부 지간의 애정은 사람 뺨칠 정도로 섬세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인용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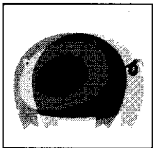
닭(酉)

십이지의 열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8월, 시간은 낮 5시부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로 여겨졌다. 닭은 흔히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고 칭송되는데, 닭의 벼슬은 문(文)을, 발톱은 무(武)를 나타내며 적을 앞에 두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이며, 먹이를 보고 꼭꼭거려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울어서 새벽을 알리는 신(信)이라 했다



개(戌)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9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늘 인간의 주위에서 존재해 왔다. 오랜 시간을 인간과 함께 살아온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며 가장 우호적인 동물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꿈에 등장하는 개는 흔히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돼지(亥)

십이지의 열두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0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돼지는 지신과 풍요의 기원, 돼지꿈, 돼지 그림, 업돼지 등에서 길상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물신을 상징한다.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풍습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돼지는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